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 23:25)

죄의 장악력

마태복음 23 장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즉 ‘죄의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장악력이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나 집단을 장악하여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전면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하는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죄가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여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죄의 장악력입니다.

최근에 카츠타다이교회에 나오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친구를 전도해 왔습니다. 마침 그 주일은 젊은이, 청소년들-youth 그룹들-의 성경공부와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받은 그 학생도 오후까지 남아서 함께 시간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면서 의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아니면 죄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다고 놀라워하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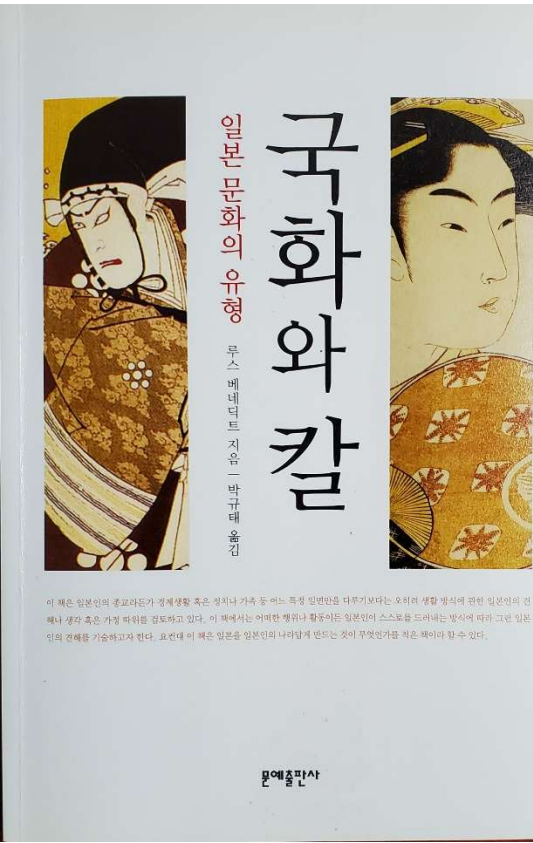
일본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본사회의 모습은 철저히 죄를 숨기고 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죄가 왜곡되어 있으며 그 만큼 일본사회는 죄에 병들어 있다고 봅니다. 죄의 장악력 관점에서 볼 때 일본사회는 불쌍한 사회라고 판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일본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 장은 일본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3 장 25 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은 다테마에(建前, 겉모습)와 혼네(本音, 속마음)의 사회입니다. 일본인들은 일생동안 속마음을 숨기고 겉모습만 드러내고 산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마음이 이미 탐욕(물질적 죄)과 방탕(윤리적 죄)으로 가득찬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급하게 이것이 일본인의 모습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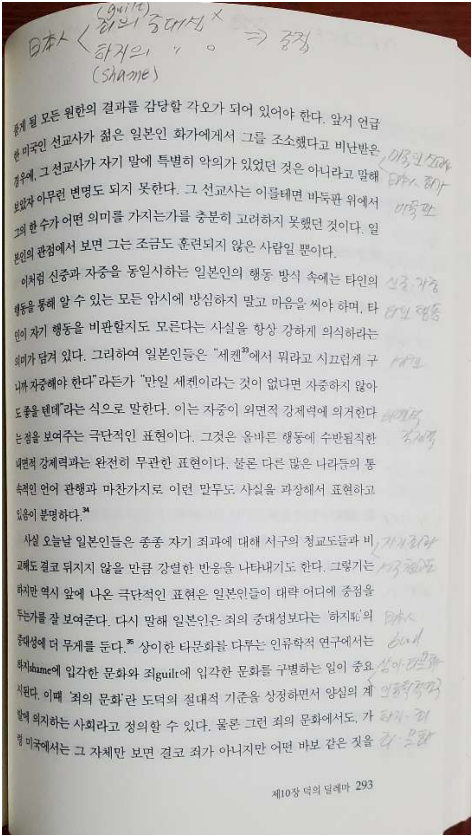
1. ‘국화와 칼’

일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전 가운데 하나는 아마 ‘국화와 칼’ (저자:루스 베네딕트)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저자는 20 세기 최고의 인류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류학 발전과 형성에 크게 기여한 미국인입니다. 베네딕트는 생전에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 책 ‘국화와 칼’은 미 전시정보국의 요청을 받아 미국에 사는

일본인 면담과 방대한 자료 조사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본 문화 분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책이며 오늘날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화의 칼의 책 표지)



(책 내용의 일부)

「이 책에서 저자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인생관의 한 단면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파헤친다. 사실 오늘날 일본인들은 종종 자기 죄과에 대해 서구의 청교도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앞에 나온 극단적인 표현은 일본인들이 대략 어디에 중점을 두는 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본인은 죄의 중대성보다는 ‘하지恥’의 중대성에 더 무게를 둔다. 상이한 타문화를 다루는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하지 shame 에 입각한 문화와 죄 guilt 에 입각한 문화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시된다. <중략>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중략> 하지만 하지의 문화에서는 설사 참회승에게 과오를 고백한다 해도 조금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나쁜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한’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고백은 도리어 스스로 고민을 자초하는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지 문화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신에 대해서조차 고백한다는 습관이 없다. 거기에는 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례는 있지만 속죄의례는 없다.」

이처럼 일본인에 대한 죄의 장악력은 한국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일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복음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선과 불법을 버리고 영적/도덕적으로 성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회개의 길은 하지 문화가 끝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 우리 가족

어느 새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됩니다. 두 딸과 우리 부부는 카톡방을 통해 매일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은이는 8월 논문 제출을 앞두고 집중하는 가운데 매일 자신의 QT를 가족들과 공유를 하고 있으며 주향이는 언어학에 대한 많은 과제와 씨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 딸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는 카츠타다이교회와 일본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 딸과 우리 부부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만물이 약동하는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카츠타다이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더욱 성숙하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2. 주일예배와 수요일 성경공부/기도회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3. 4월에 있을 행사들을 위해 함께 손을 모아 주십시오
4월 13일(둘째주일)-전도집회
4월 20일(세째주일)-부활주일과 부활 축하 모임
4월 27일(네째주일, 오후)-교회 수양회
4.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5. 주은-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논문을 작성하게 하소서
주향-언어학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6.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7. 우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열매맺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2025년 4월 1일(화)

일본 카츠타다이(勝田台)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